

WEEK

07

종교문명 간 공존과 교류



학습목표

- I. 중세 문명교류의 현장은 어디인가?
- II. 중세 지중해의 문명교류 유형을 알아보기
- III. 중세 문명교류의 다양성 이해하기

학습목차

- I. 중세 이베리아 역사(8~15세기)와 접변의 문명교류
- II. 중세 시칠리아의 역사
- III. 중세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교류

I. 중세 이베리아 역사(8-15세기)와 접변의 문명교류

1. 중세 지중해의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
2. 서고트족의 침입과 이베리아의 상황
3. 이베리아 기독교 주민과 무슬림의 800년 공존
4. 어떤 유형의 문명교류인가?

1. 중세 지중해의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

◆ 7세기 이후 지중해의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 형성



특징

- 로마제국의 몰락으로 동체음양의 구도 해체
- 이체음양의 지중해 문명교류 구도 형성
- 정치, 종교적 닫힌 경계
- 문화, 경제적 열린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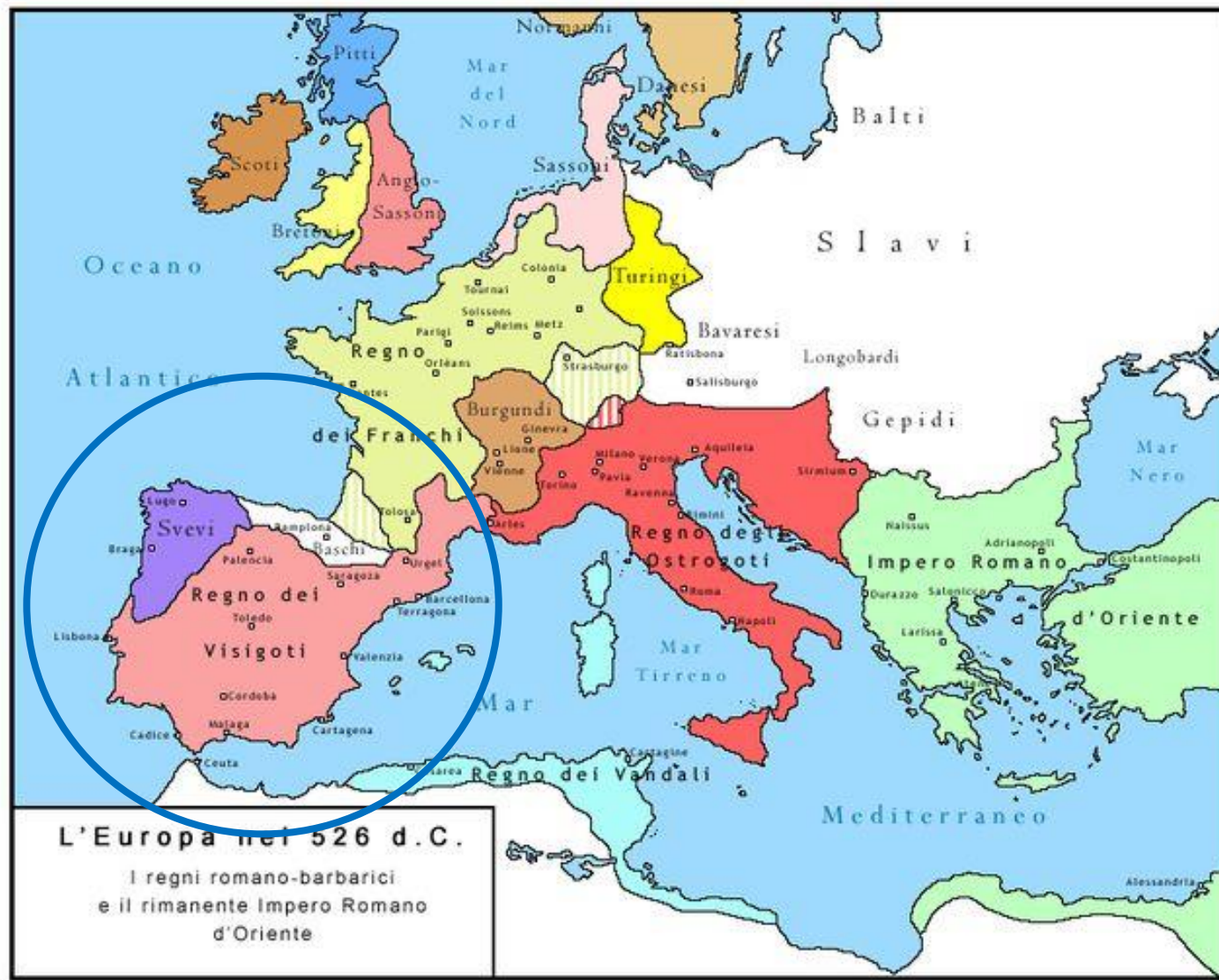
2. 서고트족의 침입과 이베리아의 상황

◆ 게르만 서고트족의 통치



특징

- 서고트족의 침입과 탄압정치
- 종교적 교리 차이
- 유대인 박해
- 강압적인 세금징수
- 정치적 폭정
- 문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출처] 출처내용

(1https://www.google.com/search?q=Barbarian+kingdoms&sa=X&biw=1366&bih=625&sxsrf=ALiCzsamAjXS4J0dvq4CWxxwrLrd4dxyA:1659791364157&tbm=isch&source=iu&ictx=1&vet=1&fir=GA0yYtqQwjszXm%252CMFPqf088wq1WwM%252C_%253BiEYYH-OumYzreM%252CMFPqf088wq1WwM%252C_%253BENQTBIV3BKM1M%252C4ZvkEwpjsO6-BM%252C_%253B91R8JAICcF74LM%252CnTGXISL99c7dM%252C_%253BHv9StZE1pQp5dM%252CDFKNXKfBTehqJM%252C_%253BkQ7dlb9x4YsdlkS80dvGOKwN6O4-UQ&ved=2ahUKEwigrXVpLL5AhUWU94KHS2TD9QQ_h16BAhkEAE#imgcr=DtbJay2UjRRmPM2)

3. 이베리아 기독교 주민과 무슬림의 800년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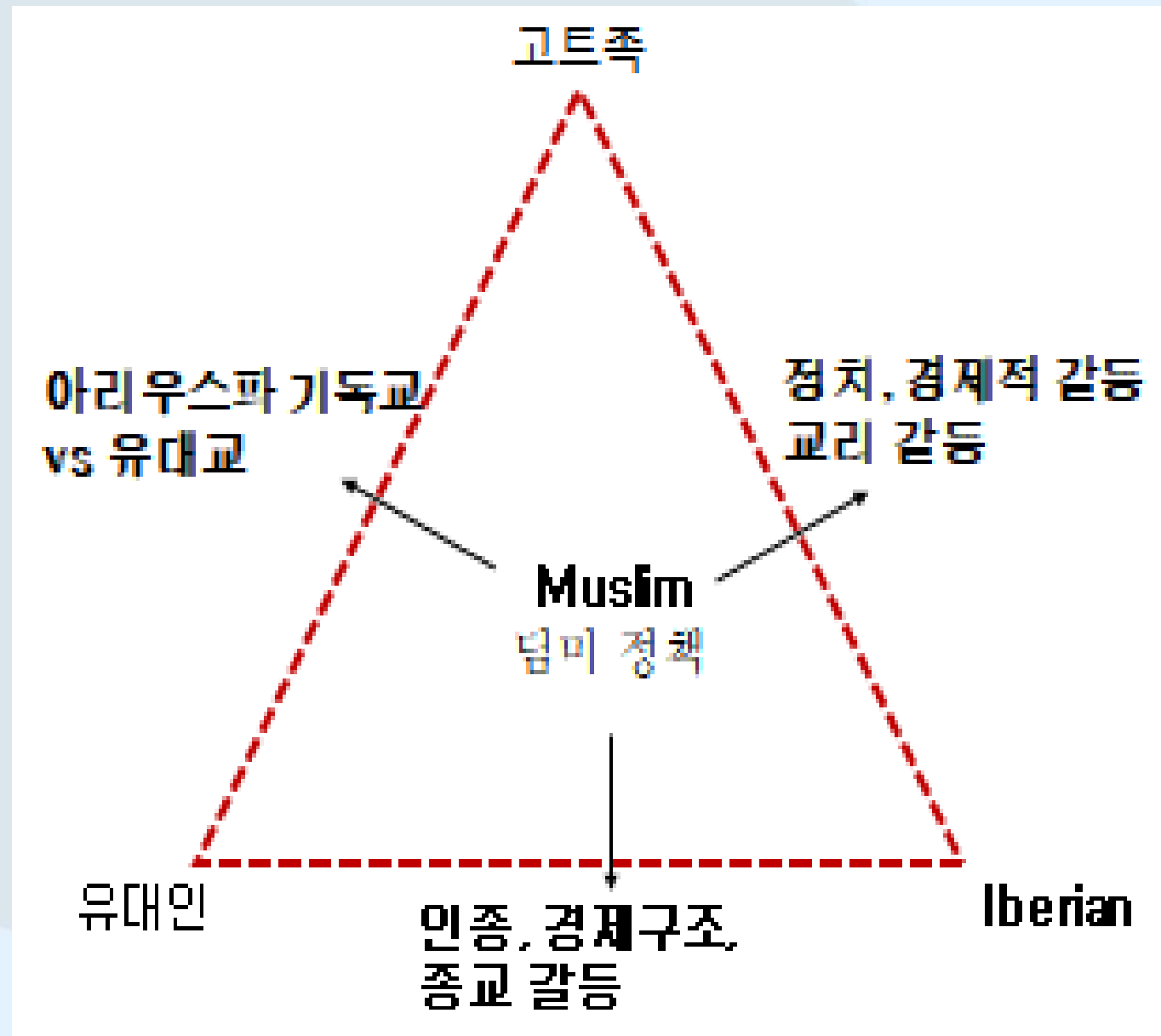
◆ 무슬림의 이베리아 통치와 영향

특징

- 711년
- 현지 주민들의 친(親) 무슬림 성향
- 정복 후 친(親)주민 정책 – 세금, 종교, 문화

특징

- 선진문물의 유입
- 다양한 농산물의 유입
- 선진적인 치수(治水)기술의 도입



무슬림의 이베리아 통치

4. 어떤 유형의 문명교류인가?

◆ 접변(接變)의 문명 교류 유형

특징

- 8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접변 과정이 동반됨(인종, 문화, 사고방식, 경제 교류 등)
- 반면 정치, 종교적으로는 첨예한 대립(기독교 vs 이슬람)이 동반(Reconquista vs Convivencia) – 동전의 양면
- 경제적 발전(농업경제 + 교역 경제)

4. 어떤 유형의 문명교류인가?

◆ 접변(接變)의 문명 교류 유형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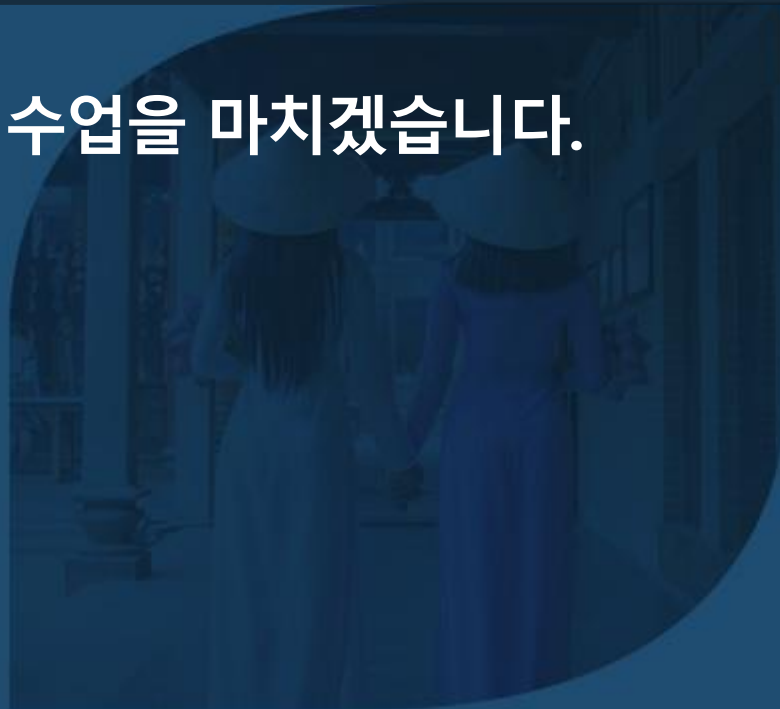
- 문명 교류의 흐름이 세대 변천(일상적인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 **현대 다민족 글로벌 사회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형태의 문명 교류?**
- 문화적 발전(건축의 메스키타: 아랍어 마스지드에서 유래, 코로도바 산타마리아 성당)



코르도바의 Mezquita:
기독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의 균형

I. 중세 이베리아 역사(8-15세기)와 접변의 문명교류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II. 중세 시칠리아의 역사

1. 피지배의 역사
2. 지속적인 외세의 통치



1. 피지배의 역사

◆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



특징

- 지중해의 배꼽: 북으로는 이탈리아, 남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으로는 레반트와 아나톨리아, 서로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음.
- 고대 지중해 항해의 중간 기착지(식량, 식수 등)
- 지중해 패권의 핵심 요충지

1. 피지배의 역사

◆ 정복, 지배, 착취

특징

-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카르타고, 로마
- 게르만, 이슬람, 노르만, 프랑스 양주가문
- 아라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왕국
- 외부세력의 착취
- 편해(片害)의 역사정체성

2. 지속적인 외세의 통치

◆ 지배, 정복, 착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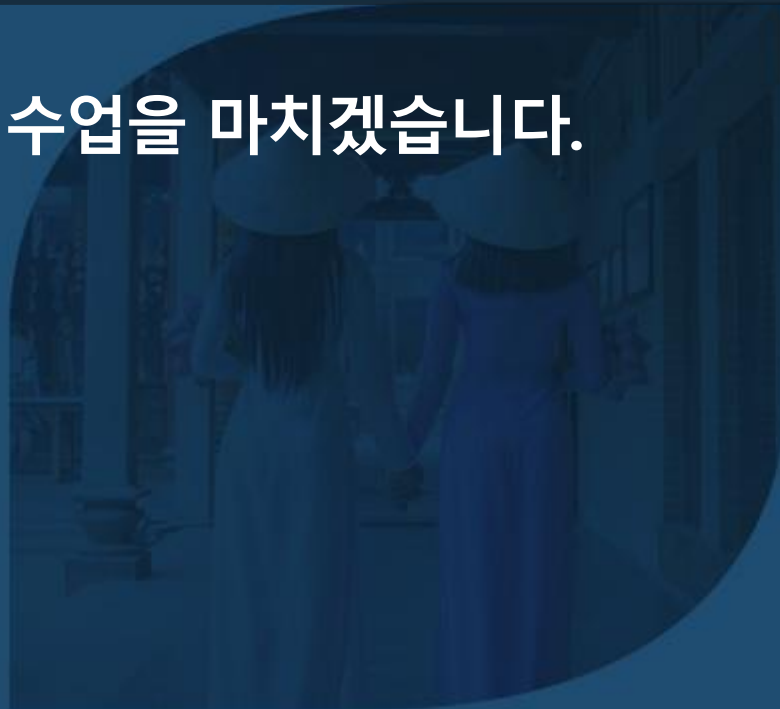


특징

- 외부세력의 식민지배 or 무역거점
- 자원착취의 대상
- 외부세력들 간 전략적 경쟁을 위한 중요성
- 시칠리아 역사의 수동성은 이 섬을 둘러싼 안팎의 관계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임
- 그 누구의 섬도, 그 누구를 위한 섬도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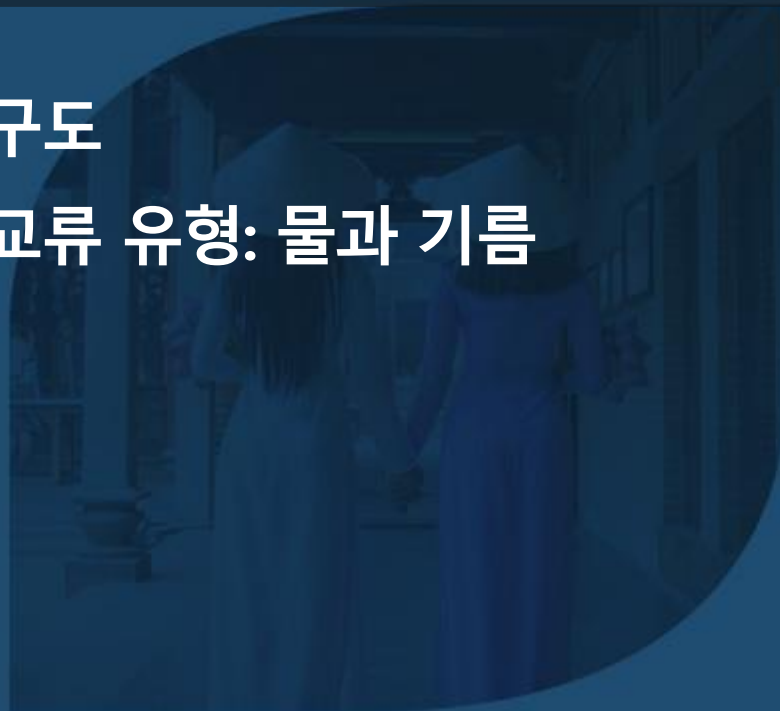
II. 중세 시칠리아의 역사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Ⅲ. 중세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교류

1. 상반의 관계구도
2. 상반의 문명교류 유형: 물과 기름



1. 상반의 관계구도

◆ 관계 균형의 부재



특징

- 외부: 외부세력과 내부세력 간 심각한 관계 불균형
- 내부: 지주계층과 소작인 계층
- 소작인 계층의 **이중적 소외감**(외부세력, 지주세력)
- 상호불신 팽배, 상보성 관계 단절
- 문화적 소통 부재, 경제적 교류 단절
- 갈등 < 협력
- 차이의 차별적 의미

2. 상반의 문명교류 유형: 물과 기름

◆ 편해(片害)의 교류 유형



특징

- 그리스, 카르타고의 식민지
- 로마, 앙주 가문, 아라곤 등의 자원착취 대상
- 게르만의 착취와 강압적인 지배
- 외부세력의 정치,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
- 로마제국의 속주, 식량생산지
- 외부세력의 군사적 교두보 전략

2. 상반의 문명교류 유형: 물과 기름

◆ 접변의 교류 유형

특징

- **무슬림 지배** 시기의 상보성
- 문명성숙도, 문화영향력
- 문화수용성, 문명 유동성

특징

- **노르만 지배** 시기의 융합형 교류
- 문명성숙도, 문화영향력
- 문화수용성, 문명 유동성

2. 상반의 문명교류 유형: 물과 기름

◆ 접변의 교류 유형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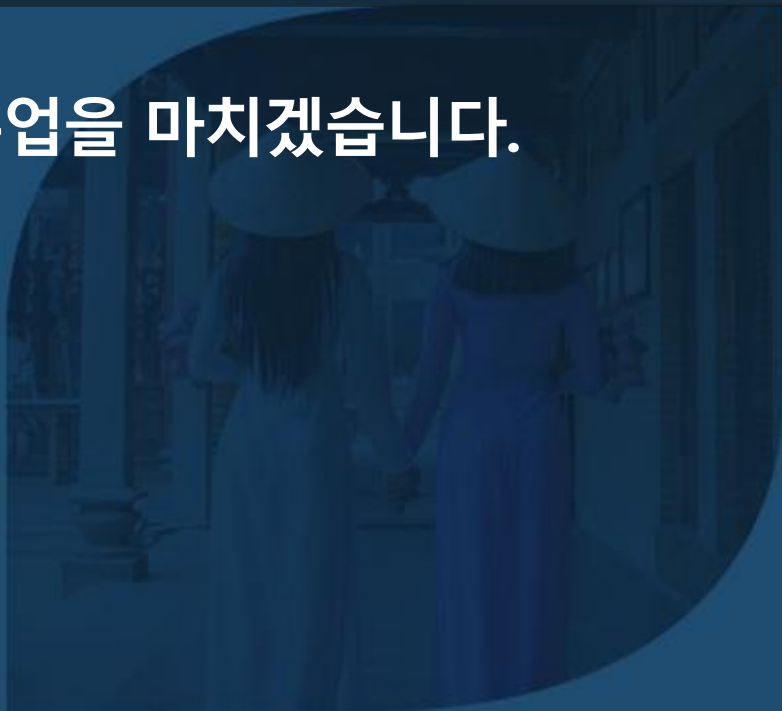
- 프리드리히 2세의 보편제국: 시칠리아의 다인종 글로벌 문화에 근거한 보편제국 지향
- 시칠리아 피지배 역사의 현대적 소급

특징

- 접변과 편해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중첩의 교류유형으로 정의된 이유는 무엇인가?

Ⅲ. 중세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교류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본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저작물]입니다.
외부 강의사용은 물론 무단적인 복사 및 배포를 금합니다.